

건축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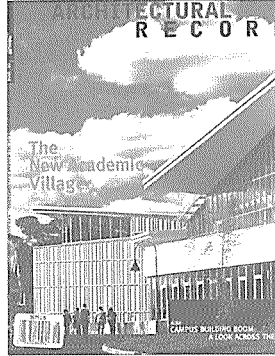
해외잡지동향
overseas journal

Architectural Record
신건축

Architectural Record

2004년 8월

이번 호에서는 특집으로 현재 미국 전역에서 불고 있는 대학시설 재개발 붐의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건물타입별로 최신 경향을 살펴보는 칼럼에서는 부띠끄 호텔을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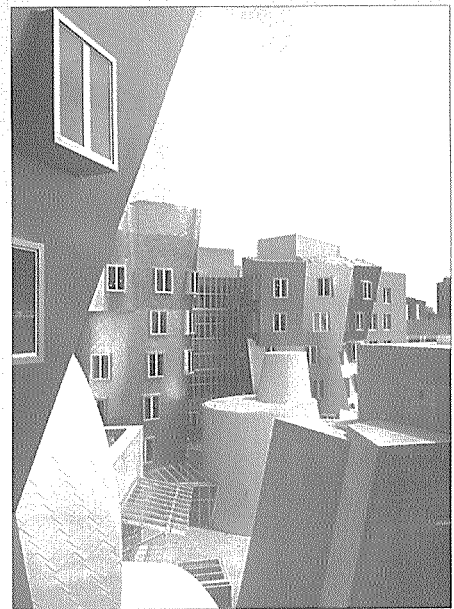
■ 특집 - 대학 캠퍼스 계획

현재 10억 달러 규모의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UCLA를 비롯, 미국의 많은 대학에서 건설붐이 일어나고 있다. 통신분야의 혁신, 다부문간 학문의 확산, 과학 발전, 학생들의 소비문화, 지역 사회와의 연계, 1990년대의 경제 호황 등 다양한 인자에 의해 촉발된 이러한 캠퍼스 재개발은 특히 장기적 계획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캠퍼스 계획은 단기적인 필요성과 장기 계획 사이의 절충에 의해 진행될 수밖에 없으나, 시설들의 수와 종류가 점차 늘어나면서 장기적인 안목의 마스터플랜이 갖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계획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또다른 특징은 그 대상이 건물이 아니라 랜드스케이프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숙소계획에 있어 복합시설을 통해 '기숙사'에서 '주거'로 변화되어가고 있다는 점, 지역 사회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하는 등 인근 도시와의 유기적 연계가 추구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미래지향적인 학문을 추구하면서도 건축양식은 고딕 등 과거의 형태를 선호하는 것은 캠퍼스 계획의 오랜 모순이었는데, Frank Gehry 등 혁신적인 건축형태를 사용하는 건축가들의 건물들이 전체적인 대학 분위기를 새롭게 바꾸면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건축계의 주요한 후원자이기도 한 대학과 관

련된 계획들은, 특히 전후 캠퍼스 붐을 타고 지어진 건물들에 대한 개보수가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면서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Gehry Partners의 미국 매사추세츠 주 Stata Center

MIT 대학 내에 들어선 Frank Gehry의 신작은 타워형의 건물들이 조금씩 뒤들리면서 서로 얽혀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천창을 통해 건물 곳곳에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계획되었다. 건물 내부에서도 중앙 홀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들이 서로 돌출되면서 얽혀있어 피라내지의 그림을 연상시키며, 다양한 공간이 연출되는 작은 도시로 얽혀진다. 이는 보다 개방적이고, 보다 넓은 공공면적을 갖고 있으며, 협업을 용이하게 하는 컴퓨터과학 관련 연구공간을 필요로 했던 대학측의 요구에 잘 부합하고 있다. 특히 근래 대부분의 과학적 발견이 팀작업, 부문간 교류 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서로 유기적으로 엮인 건물군의 구성은 매우 중요한 목표였으며, 이를 위해 Gehry의 사무실에서는 일본주택의 쇼지 스크린 등 다양한 요소들을 실험하며 교류 공간의 모형을 만들어내곤 했다. 결과적으로 Stata Center는 연구 공간 이외에 체육시설과 매점 등 공공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캠퍼스 전체에 대해 열려있는 심리적으로 자유로운 공



Gehry Partners의 미국 매사추세츠 주 Stata Center

간을 구축하였다. 보는 이들 사이에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형태 자체가 서로 논쟁하는 듯한 Gehry의 건물군은 대학의 진보적인 연구 방식을 잘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MIT는 우수한 학생과 교수진을 포섭하고, 그들의 발명을 재빠르게 전파하는데 있어 이 혁신적인 형태의 건물군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외에 Weiss/Manfredi Architects의 미국 매사추세츠 주 Smith College Campus Center, Brian Mackay-Lyons Architect의 캐나다 Academic Resource Centre, Alsop Architects의 캐나다 Sharp Centre, Jensen & Macy Architects의 미국 캘리포니아 주 CCA Graduate Center가 소개되어 있다.

■ 건물타입별 연구 - 호텔

특색 없는 호텔이 지배하던 1950~60년대, 빅토리아 양식 등 고풍적인 디자인이 유행했던 70년대에 이어 80, 90년대에는 소위 부띠끄 호텔이 주류를 이루었다. 건축가보다는 Philippe Starck, Andree Putnam 등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주도했던 이 움직임은 새로운 감각을 작은 규모의 공간들에 채움으로써 방문객들의 미의식을 충족시켰다. 9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부띠끄 호텔들이 체인을 형성하며 그 영향력을 넓혀 나갔다. 최근의 특징은 도심에 지어지는 호텔들의 경우 신축보다는 기존 건물의 리노베이션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과 미국보다는 유럽, 아시아에서 흥미로운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밀라노의 경우 Ed Tuttle의 Park Hyatt Milano, Vincenzo De Cotiis의 Straf Hotel 등 다양한 호텔 프로젝트가 완성되어 부띠끄 호텔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올랐으며, 중국에서는 아시아 건축가들이 참여한 만리장성 인근의 클럽 하우스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이러한 호텔들은 디자인을 위해 편의성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너무 화려하지 않은 근대양식을 선호하는 장년층의 요구를 등안시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뉴욕을 방문하는 많은 건축가들이 여전히 고전적인 Four

Seasons Hotel에서 머문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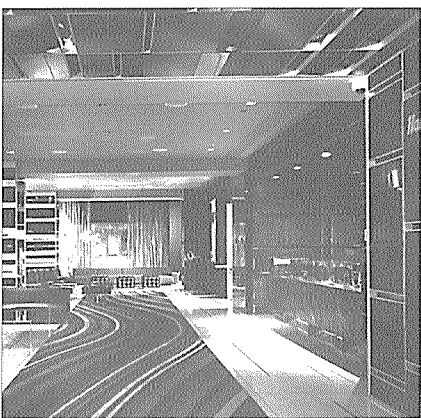
Lucien Lagrange Architects의 미국 시카고 시 Hard Rock Hotel

20세기 초 시카고와 뉴욕의 마천루 건축으로 유명한 Daniel Burnham의 아들들이 설계한 1929년도 고층 건물을 개조한 호텔이다. 각 공간은 테마를 갖고 설계되어 있다. 로비와 지하의 바는 거울과 철재마감을 사용하여 공간의 깊이에 착시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물결 패턴의 카펫은 1970년대 록앤롤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건물의 파사드와 엘리베이터 홀은 1929년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복원하고 있다. 아울러 대지 옆으로 4층의 증축부를 두어 볼룸과 회의실 등을 수용하고 있다.

기타 최신 호텔의 사례로 Deborah Berke & Partners Architects의 미국 아리조나 주 Scottsdale의 James Hotel, Antonio Citterio and Partners의 이탈리아 밀라노 Bulgari Hotel을 다루고 있다.

■ 기타

The Phaidon Atlas of Contemporary World Architecture 등 신간 서적 리뷰, 디트로이트 재활 도시 계획에 대한 에세이, 제1회 런던 건축비엔날레 단신, 베니스 비엔날레 미국 전시관 등을 다루고 있다. (번역 / 최원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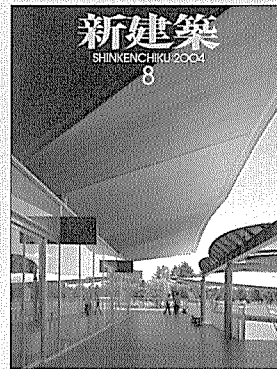


Lucien Lagrange Architects의 미국 시카고 시 Hard Rock Hotel

신건축

2004년 8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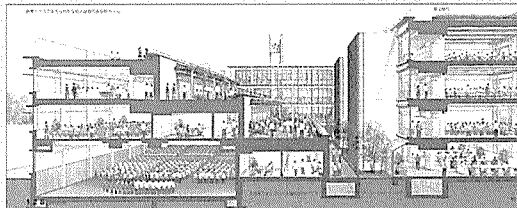
이번 호의 작품소개에서는 4개의 중·고등학교가 소개되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교과서적인 배치에서부터 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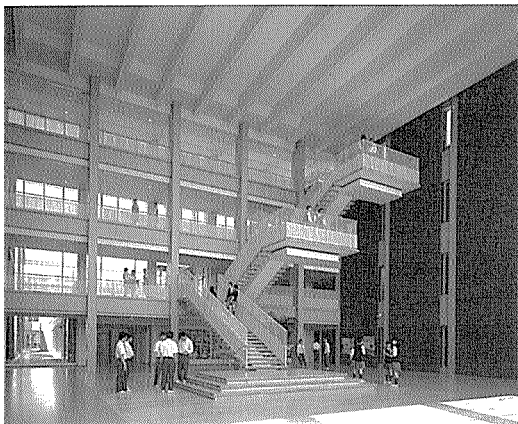
소한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새로운 학습과 생활공간을 만들어낸 예까지 그 양상은 다양하나, 아직까지 정형화된 교사 건축에 익숙한 국내의 학교건축에 비교하면 모두 새롭고 충실한 학교 건축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학교건축은 모두 학교를 배움의 장일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생활하는 작은 도시, 제2의 주거로 해석하고 있다.

타쿠소쿠(拓補)대학 제1고등학교 (설계:니혼세케이日本設計)

1948년된 이 학교는 본래 있던 지역(小平市)의 재개발로 2004년 4월 현 소재지인 도쿄의 武蔵村山市로 옮기면서 새로운 교사를 갖게 되었다. 새로운 타쿠소쿠대학 제1고등학교의 교사에서는 공용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람들이 모이고, 동선들이 중첩되는 공간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교실들이 배치되는 형태를 취한 것이다. 부지는 그리 넓지 않아 학교건축의 전형적인 배치, 즉 공용시설동을 척추로하여 교실동들이 연결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모'자형의 중정형 배치를 택했다. 이 교사 건축의 특



타쿠소쿠(拓補)대학 제1고등학교



타쿠쇼쿠(拓植)대학 제1고등학교

징은 계단형의 중정과 4개 층을 오픈한 엔터런스 홀이다. 한계 층마다 셋백(set back)되어지며 계단형의 모습을 이룬 중정은 1층에 대공간, 2층에 중공간, 3층에 소공간을 둔 매스가 만들어낸 것이다. 이는 서로 다른 크기의 공간을 짝지어진 중정형의 배치에 효과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각 층에 접지성을 부여하여 실내외 공간의 연결을 1층에서 3층까지 연장시켰고, 4층 높이의 건물로 둘러싸여 답답하게만 느껴지기 쉬운 중정을 생동감 있는 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다. 또한 4개 층을 오픈한 대공간인 엔터런스 홀은 이 학교의 또 다른 메인 스페이스다. 대형 공연장에서나 맞출 수 있는 공간감을 학교의 엔터런스 홀에서 제공하고 있다. 중정이 학교 생활의 중심공간이라면 이 엔터런스 홀은 학교를 대표하는 상징적 공간이다. 학교 학생으로서의 동질감과 자부심을 이 엔터런스 홀에서 느끼기를 건축가는 바랬다. 또한 마치 도시의 광장과 같은 중정에서 보낸 3년간의 기억을 이 학교 졸업생들은 추억으로 간직할 것이다.

토카이(東海)대학 부속 제2고등학교 (설계:다이세이건설 설계본부)

토카이대학 부속 제2고등학교는 전형적인 학교건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교실동과 공용부분을 분리하고, 3개동으로 분동된 교실동은 6~7개 교실이 중복도형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동을 이루면서 각각 공용시설동에 브릿지로 연



토카이(東海)대학 부속 제2고등학교

결되고 있다. 교실공간과 공용공간의 명확한 분리가 배치의 주된 컨셉이다. 그러면서도 교사는 '인터랙티브 캠퍼스'를 표방하고 있다. '센터 하우스'로 명명된 공용공간들의 미디어 라운지, 도서실, 네트워크 센터 등은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의견을 나누는 장소로 계획되었으며, 소모임이 용이하도록 계획된 이들 공간은 강단을 향해 줄지어 좌석이 배치된 교실의 공간과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공용시설동과 교실동의 사이에는 마루를 깔 데크와 녹지공간이 마련되어 학생들의 휴식과 생활공간이 되고 있으며, 이 옥외공간은 '교감의 장'으로 명명되었다.

케이센(惠泉)여학원 세타가야(世田谷)캠퍼스 (설계: 카지마 디자인)

케이센 여학원의 세타가야 캠퍼스는 여자 중



케이센(惠泉)여학원 세타가야(世田谷)캠퍼스

학교와 고등학교가 함께 자리한 캠퍼스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중정을 중심으로 연결된 이 교사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은 교실마다 마련된 마치 공동주택을 연상시키는 발코니와 보통교실과 특별교실 사이에 마련된 아트리움공간이다. 학교의 중정은 이들 발코니들로 둘러싸여 있다. 이 발코니로 인해 보통교실의 입면은 공동주택의 입면을 연상시키는데, 학교가 학생들에게는 제2의 거주공간임을 상기시킨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에 마련된 중정은 이들 발코니들로 둘러싸여 있다.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발코니에 나와 담소를 나누며, 중정은 이와 같은 생활들로 둘러싸이면서 공동주택단지의 광장과 같은 공간이 된다. 학교를 청소년들이 거치게 되는 작은 도시, 혹은 제2의 주거로 해석한 부분은 앞의 두 학교와 공통된 부분이라 하겠다. 고등학교의 보통교실과 특별교실 사이에 위치한 아트리움 공간은 4층의 천장에 마련된 천창의 빛을 1층의 미디어센터에까지 제공하며, 1층부터 4층까지를 엮는 또 다른 생활의 중심공간이 되고 있다. 건물의 각 부분 부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이 공간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일어나는 여러 활동들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이 아트리움 공간은 학생과 교사 등 학교의 구성원들이 상호 교감할 수 있는 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번역 / 강상훈)